# Ⅳ.강릉단오제의 절차와 성격

## 1.대관령산신제(大關嶺山神祭)

대관령은 해발870m의 고령(高嶺)인 만큼 험로(險路)준령(峻嶺)이며 대관령에서 다시 산을 타고 북으로 1km쯤 가면 숲이 우거진 곳이 있으니 이 숲속에 산신당과 성황당이 있다.

대관령산신제를 지내는 산신당은 대관령성황당에서 동북쪽으로 40m 정도 거리를 두고 자리잡고 있는데 단간와가(單間瓦家)로 되어 있다. 산신당은 「산신당(山神堂)」이란 현판과 앞쪽의 두 기둥에는 「강인간지오복(降人間之五福)」과 「응천상지삼광(應天上之三光)」이라 쓰여져 있다. 당내 정면에 높이 3척 정도의 제단이 있고 「대관령산신지신위(大關嶺山神之神位)」라고 쓰여진 위패(位牌)가 있으며 그 앞에 향로(香爐)와 촉대(燭臺)가 놓여 있다.

사진 69. 대관령산신을 모신 산신당

산신은 주신(主神)이기 때문에 매년마다 제사를 지내고 있고, 한편 이곳을 지키는 김여인의 말에 의하면 산신은 주인이고 성황과 부처는 손님이라고 한다.

산신당 앞 10리쯤에 사방일척(四方一尺) 정도의 편편한 돌을 놓고 둘레에 높이 2척 정도의 돌이 세워 있으며 반수(飯數)를 놓은 흔적이 있었다. 이 돌을 「수비당」이라고 하는데 귀신을 퇴송(退送)하는 곳이라고 한다.

음력 4월 15일 아침에 대관령 산신당에서 산신제가 행해지는데 관원에 의해서 삼헌(三獻)이 이루어지고 홀기(笏記)에 적힌 순서에 따라 진행되는 유교식 제례형태이다. 홀기에 따른 대관령산신제의 제차는 다음과 같다.

사진 70. 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옷을 갈아입는 제관들

사진 71. 산신제가 진행되는 모습

・헌관급제집사구취문외위(獻官及諸執事俱就門外位):술잔을올리는헌관과모든집 사는문밖자리에서시오
・찬인인축급제집사입취배위(贊引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찬인은축관과제집사를인 도하여전하는자리에들어섬
・개재배(皆再拜):모든집사는두번절함
・예관세위(詣盥洗位):모든집사는손을닦는자리에섬관
・관수(盥手):손을씻음
・세수(帨手):수건으로손을닦음
・각복위(各復位):각각제자리에돌아가섬
◐행참신례(行參神禮):신을뵈옵는예
・찬인인헌관급제생입취배위(贊引引獻官及諸生入就拜位):찬인은헌관과모든제관을 인도하여절하는자리에섬
・개재배(皆再拜):모두두번절을함
・국궁(鞠躬):하리를구부림
・배(拜):절을함
・흥(興):일어남
・배(拜):절을함
・흥(興):일어남
・평신(平身):몸을바로함
・찬인진헌관지좌백근구청행사(贊人進獻官之左白謹具請行事):찬인은헌관왼편에 나아가행사를봉안할것을알림
◐행전폐례(行奠幣禮):폐백을드리는예
・찬인인초헌관예관세위(贊引引初獻官詣盥洗位):찬인은초헌관을인도하여손닦는 자리에나아가섬
・진홀(搢笏):홀을띠에꽂음
・관수(盥手):손을씻음
・세수(洗手):수건으로손을닦음
・집홀(執笏):홀을손에듦
・인예산신신위전(因詣山神神位前):산신의신위앞에나아가섬
・북향립(北向立):북쪽을향해서섬
・진찬(陳饌):제수를진설함
・궤(跪):꿇어앉음
・진홀(搢笏):홀을띠에꽂음
・봉향봉로승(奉香奉爐陞):봉향과봉로는신위앞에나아감
・삼상향(三上香):향을세번올림
・헌폐(獻幣):폐백을초헌관에게전함
・집폐(執幣):초헌관이폐백을받음
・전폐(奠幣):헌관이신위앞에폐백을올림
・집홀(執笏):홀을손에듦
・부복(俯伏):엎드림
・흥(興):일어남

・평신(平身):몸을바로함
・인강복위(引降復位):제자리로돌아가섬
◐행초헌례(行初獻禮):초헌관이드리는예
・찬인인초헌관(贊引引初獻官):찬인은초헌관을인도함
・인예산신신위전(因詣山神神位前):산신신위앞에나아가섬
・궤(跪):꿇어앉음
・진홀(搢笏):홀을띠에꽂음
・사전거멱작주(司奠擧冪酌酒):사전은보자기를열고술을잔에부음
・봉작전작승(奉爵奠爵陞):봉작과전작을맡은집사가술을붓는곳에나아감
・헌작(獻爵):술잔을초헌관에게드림
・집작(執爵):헌관을술잔을받음
・전작(奠爵):술잔을신위앞에올림
・계개(啓蓋):덥개를열음
・정저(正箸):저를신위앞에바로놓음
・축진초헌관지좌동향궤독축(祝進初獻官之左東向跪讀祝):축관은초헌관의왼쪽에 나아가동쪽을향하여꿇어앉아축문을읽음
・집홀(執笏):홀을손에듦
・부복(俯伏):엎드림
・흥(興):일어남
・평신(平身):몸을바로함
・인강복위(引降復位):제자리에돌아감
・철작(撤爵):술잔을물림

아헌례(亞獻禮)와종헌례(終獻禮)는초헌례(初獻禮)의절차와동일하게반복되는데,다만독축(讀祝)이있을뿐이다.

・헌관개재배(獻官皆再拜):헌관은두번절함.
・국궁(鞠躬):허리를구부림
・배(拜):절을함
・흥(興):일어남
・배(拜):절을함
・흥(興):일어남
・평신(平身):몸을바로함
◐행망료례(行望燎禮):폐백과축문을소각하는예
・찬인인초헌관예망료위(贊引引初獻官詣望燎位):찬인은초헌관을인도하여불태우는 자리에나아감
・축이비취축급폐강자서개출(祝以篚取祝及幣降自西皆出):축관은광주리에축문과 폐백을담아서쪽계단으로나아감
・치어감(置於坎):소각하는자리에감
・가료(可燎):축문과폐백을불에태움
・인간복위(引降復位):초헌관과축관이제자리에돌아옴

◐ 행사신례(行辭神禮):신위를사뢰하는예

・하시저(下匙箸):수저를물림

・합개(闔蓋):제수의뚜껑을닫음

・축철잔(祝撤饌):축관은찬을물림

・찬인진헌관지좌백례필(贊引進獻官之左白禮畢):천인은헌관의왼쪽에나아가예가 끝난것을알림

・헌관급제생개재배(獻官及諸生皆再拜):헌관과모든제관은두번절을함

・국궁(鞠躬):허리를구부림

・배(拜):절을함

・흥(興):일어남

・배(拜):절을함

・흥(興):일어남

・평신(平身):몸을바로함

・찬인인헌관급제생이차출(贊引引獻官及諸生以次出):찬인은헌관과모든제관을인 도하여물러감.

・축급제집사개재배(祝及諸執事皆再拜):축관과제집사는두번절을함

・합문이퇴(闔門而退):사우문을닫고물러감

이상과같이산신제는이루어지고,대관령산신제에쓰이는축문과그뜻은다음과같다.

維歲次某年干支四月干支朔十五日干支某官某敢昭告于
大關嶺山神之神伏惟尊靈重鎭大東保佑我人罔非神功
出雲興雨除惡去災永言報祀求福不回
謹以淸酌脯醢祗薦于神尙饗

모년4월(간지삭)15일(간지)
대관령산신님께아뢰옵니다.
엎드려생각하건데존령님은저희대동땅(영동지방을가리킴)에있어서종요로운자리에계시오며 저희들을보살피고도와주시옵니다.비바람을조절하시고풍년이들게하심과악을제거하시고재앙을물리치시는이모두가존령님의공이아닌것이없습니다.오래도록제사를받들어복을빌기를 그치지아니하여삼가마련한제물로공경을다하여정성껏올리오니흠향하옵소서.

그리고산산제에쓰이는제수와제물의진설도는다음과같다.

< 그림 2 : 대관령산신제의 제물 진설도 >

사진 72. 산신제에 쓰였던 금줄

제수는 반・병미 백미 삼승삼합(飯・餠米 白米 三升三合), 제주일승(祭酒一升), 우육 생이근(牛肉牲二斤), 육오근(肉五斤), 해물 우락어 또는 열강어 오미(海物遇樂魚 또는 悅江魚五尾), 문어일조(文魚一條), 명태어십오미(明太魚十五尾), 대구포중일미(大口脯中一尾), 계란(鷄卵) 열개(十個), 조일승(棗一升), 율사승(栗四升), 건시일접(乾柿一接), 배[梨] 또는 사과 열 개[十個], 산자(散子) 또는 과자(菓子), 소채류 약간(蔬菜流若干), 조미료 약간(調味料若干)으로 준비하는데 깨끗하고 반듯한 것만을 골라 정성스럽게 마련한다.

2. 대관령국사성황제(大關嶺國師城隍祭)

대관령국사성황제를 지내는 성황당은 당집형태이고 건평 5평 정도의 와가(瓦家)로 되어있다. 성황당은 『성황사(城隍祠)』란 현판(懸板)이 있고 당내 정면(북측) 벽에는 제단이 있고 그 앞에는 제상(祭床)이 놓여 있었다.

사당문을 좌우로 열면 국사성황상(國師城隍像)이 있고 그 앞에 촉대(燭臺) 둘과 향로(香爐) 하

나동쪽에는지화(紙花)가꽂혀있다.

성황상은궁시(弓矢)를메위엄있는노인이백마를타고있으며시종이한손으로말고삐를잡고한손으로는말채를들고있다.성황신(城隍神)의전후에는호랑이가앞뒤로호위하고있으며화면에 '대관령국사성황지신위(大關嶺國師城隍之神位)' 라고세로로써있다.이영정(影幀)은원래의것이아니고근래에새로만든것이라고한다.현재이성황사는당옆에사는김씨(江陵金氏)성을가진여인(57세)이11년째지키고있었다.

성황당은4월12일에금줄을쳤다가15일제시(祭時)에떼기때문에3일간은손님을받지않고금기(禁忌)를지킨다.김여인은해마다단오일에성황과산신께시주해올리고강릉에내려갔다가단오제가끝나는날인5월6일에는성황위패(城隍位牌)를모시고온다고한다.그러나금년에는산신님의몽조(夢兆)가있어5월4일날에강릉에내려가겠다고말했다.

대관령국사성황제는유교식형태와무속굿형태가결합된모습을보이고있다.홀기에따른대관령국사성황제의제차는다음과같다.

・헌관급제집사구취문외위(獻官及諸執事俱就門外位):헌관과제집사는문밖제자리에 섬
・찬인인축급제집사입취배위(贊引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찬인은축관과제집사를인 도하여자리에나아감
・개사배(皆四拜):제집사는네번절을함
・예관세위(詣盥洗位):세수하는자리에나아감
・관수(盥水):손을씻음
・세수(洗手):손을닦음
・각취위(各就位):모두제자리에섬
◐행참신례(行參神禮):신을뵈옵는예
・찬인인헌관급제생입취배위(贊引引獻官及諸生入就拜位):찬인은헌관과제관을인도 하여절하는자리에섬
・개사배(皆四拜):헌관과모든제관은네번절을함
・국궁(鞠躬):꿇어앉음
・배(拜):절을함
・흥(興):일어남
・배(拜):절을함
・흥(興):일어남
・배(拜):절을함
・흥(興):일어남
・평신(平身):몸을바로함
・찬인진헌관지좌백근구청행사(贊引進獻官之左白謹具請行使):찬인은헌관의왼편 에나아가행사를봉행할것을알림
◐행전폐례(行奠幣禮):폐백을드리는예
・찬인인초헌관예관세위(贊引人初獻官詣盥洗位):찬인은초헌관을인도하여세수하는 자리에섬
・진홀(搢笏):홀을띠에꽂음
・관수(盥水):손을씻음
・세수(洗手):손을닦음

・집홀(執笏):홀을손에듦
・인예국사성황신위전(因詣國師城隍神位前):국사성황신위앞에나아가섬
・북향립(北向立):북쪽을향해섬
・궤(跪):꿇어앉음
・진홀(搢笏):홀을띠에꽂음
・봉향봉로승(奉香奉爐陞):봉향과봉로가신위앞에나아감
・삼상향(三上香):세번향을올림
・헌폐(獻幣):폐백을헌관에게전함
・집폐(執幣):제관이폐백을받음
・전폐(奠幣):헌관이신위앞에폐백을드림
・집홀(執笏):홀을손에듦
・부복(俯伏):엎드림
・흥(興):일어남
・평신(平身):몸을바로함
・인강복위(引降復位):제자리로돌아가섬
・행초헌례(行初獻禮):초헌관이드리는예
・찬인인초헌관(贊引引初獻官):찬인은초헌관을인도함
・예국사성황신위전(詣國師城隍神位前):국사성황신위앞에나아감
・북향립(北向立):북쪽을향하여섬
・궤(跪):꿇어앉음
・진홀(搢笏):홀을띠에꽂음
・사전거멱작주(司奠擧冪酌酒):사전이보자기를들어열고술을잔에부음
・봉작전작승(奉爵奠爵陞):봉작과전작을맡은집사가술을붓는곳에나아감
・헌작(獻爵):술을초헌관에게드림
・집작(執爵):술잔을헌관이받음
・전작(奠爵):초한관이술을신위앞에올림
・정저(正箸):저를신위앞에바로놓음
・계개(啓蓋):덮개를열음
・부복(俯伏):엎드림
・흥(興):일어남
・소퇴(少退):뒤로조금물러남
・궤(跪):꿇어앉음
・재위자개부복(在位者皆俯伏):모든제관은엎드림
・축진초헌관지좌동향궤독축(祝進初獻官之左東向跪讀祝):축관은초헌관의왼쪽에 나아가・동쪽을향하여꿇어앉고축문을읽음
・집홀(執笏):홀을손에듦
・부복(俯伏):엎드림
・헌관급재위자개흥(獻官及在位者皆興):헌관과모든재관은일어남
・평신(平身):몸을바로함
・인강복위(引降復位):제자리로돌아감
・철작(撤爵):술잔을물림

아헌례(亞獻禮)와 종헌례(終獻禮)는 초헌례(初獻禮)와 동일(同一)하며 고축(告祝)이 없을 뿐이다.

・헌관사배(獻官四拜):헌관은 네 번 절을 함
・국궁(鞠躬):꿇어 앉음
・배(拜):절을 함
・흥(興):일어남
・배(拜):절을 함
・흥(興):일어남
・배(拜):절을 함
・흥(興):일어남
・배(拜):절을 함
・흥(興):일어남
・평신(平身):몸을 바로 함

◐행음복례(行飮福禮):음복하는 예

・찬인인초헌관음복위(贊引引初獻官飮福位):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음복하는 자리에 나아감
・서향궤(西向跪):서쪽을 향하여 꿇어 앉음
・진홀(搢笏):홀을 띠에 꽂음
・집사자작복주(執事者酌福酒):집사자는 복주를 부음
・진헌관지좌북향궤(進獻官之左北向跪):집사자는 헌관의 왼쪽에 나아가 북쪽을 향해 서 꿇어 앉음
・이작수헌관(以爵授獻官):술잔을 헌관에게 드림
・헌관수작(獻官受爵):초헌관이 술잔을 받음
・음졸작(飮啐爵):초헌관이 복주를 맛봄
・집사자수작(執事者受爵):집사자가 술잔을 받음
・축진감신위전조육(祝進減神位前胙肉):축관은 신위 앞에 나아가 제사지낸 고기를 덜어 냄
・이조수헌관(以胙授獻官):축관은 제사지낸 고기를 헌관에게 드림
・헌관수조(獻官受胙):헌관이 제사지낸 고기(조육)를 받음
・환수집사자(還授執事者):집사에게 제사지낸 고기를 돌려 줌
・집사자수조(執事者受胙):집사자는 제사지낸 고기를 받음
・복어전소(復於奠所):축관이 술 붓는 곳에 갖다 둠
・집홀(執笏):홀을 손에 듦
・부복(俯伏):엎드림
・흥(興):일어남
・평신(平身):몸을 바로 함
・인강복위(引降復位):제자리에 돌아감

◐행망료례(行望燎禮):폐백과 축문을 소각하는 예

・찬인인초헌관예망료위(贊引引初獻官詣望燎位):찬인은 초헌관을 인도하여 불태우는 자리에 나아감
・축이비취축급폐강자서계출(祝以篚取祝及幣降自西階出):축관은 광주리에 축문과 폐백

을담아서쪽계단으로나아감
・치어감(置於坎):불태우는자리에감
・가료(可燎):축문과폐백을불태움
・인강복위(引降復位):제자리에돌아감
◐행사신례(行辭神禮):신위를사뢰하는예
・하시저(下匙箸):수저저를물림
・합개(闔蓋):개를덮음
・찬인진헌관지좌백예필(贊引進獻官之左白禮畢):찬인은헌관왼쪽에나아가예가 끝난것을알림
・헌관급제생개사배(獻官及諸生皆四拜):헌관과모든제관은네번절함
・국궁(鞠躬):꿇어앉음
・배(拜):절을함
・흥(興):일어남
・배(拜):절을함
・흥(興):일어남
・배(拜):절을함
・흥(興):일어남
・배(拜):절을함
・흥(興):일어남
・평신(平身):몸을바로함
・헌관급제생이차출(獻官及諸生以次出):헌관과모든제관은물러감
・축급제집사개사배(祝及諸執事皆四拜):축관과모든집사는네번절함
・철찬합문이출(撤饌闔門而出):제수를물리고사우문을닫고물러나옴

이상과같은순서로대관령국사성황제는이루어지고,대관령국사성황제축문과그뜻은다음과같다.

維歲次某年干支四月干支朔十五日某干支某官某敢昭告于
大關嶺國師城隍之神伏惟尊靈位我重鎭自麗至今
無替厥煙凡我有求禱輒見應際此孟夏
田事方興禦災防患觸類降監若時昭事
敢有不欽茲尊舊儀載陳牲壁神其度斯庶幾歆格尙饗

모년4월15일
대관령국사성황님께아뢰옵니다.엎드려생각하건데존령님은저희들의종요로운자리에계시옵니다.고려때부터오늘에이르기까지제사를빠뜨리지않음이없었사오니존령님께비올때마다감응하시어저희들을구원하여주셨습니다.이제저희들이여름을맞았습니다.모든농사가잘되도록하여주시고재앙과근심을막아주시옵소서.성황님께서는저희와가까이계시면서어느때나소상히일러주시니감히공경히아니함이있겠습니까.구례를따르고좇아정성껏제수를마련하여올리오니성황님께서는꼭흠향하시옵소서.

그리고대관령국사성황제에쓰이는제수는다음과같다.반・병백미삼승삼합(飯・餠白米三升三合),제주일승(祭酒一升),우육생사근(牛肉牲四斤),육팔근(肉八斤),해물우락어(海物遇

樂魚)또는 열강어(悅江魚) 십미(十尾), 문어일조(文魚一條), 명태어이십미(明太魚二十尾), 대구포중일미(大口脯中一尾), 계란(鷄卵)열 개[十個], 조(棗)일승(一升), 율(栗)사승(四升), 건시(乾柿)일접(一接), 배[梨]또는사과열 개[十個], 산자(散子)십매(十枚)또는 과자(菓子)일근(一斤), 소채류(蔬菜類) 및 조미료(調味料) 약간(若干)으로 준비하는데, 이것도 또한 깨끗하고 반듯한것을골라정성스럽게마련한다.

사진 73. 대관령국사성황제를 지내기 위해 성황사에 도열한 제관들

사진 74. 헌관 세명이 나란히 서있는 모습

사진 75. 헌관이 배례를 드리는 모습

사진 76. 축문을 태우는 모습

사진 77. 유교식 의례가 끝나고 무녀가 성황사 앞에서

사진 78. 산으로 신목(神木)을 찾으러 가는 모습

사진 79. 신이 내려 신목을 잡고 있는 사람이 떨고 있다.

사진 80. 신목에 예단을 장식하는 모습

사진 81. 대관령국사성황신의 위패와 신목을 앞세우고 강릉시로 이동하는 모습

### 3.구산리성황제

구산리(邱山里)는강릉시성산면(城山面)에속해있는데,대관령에서강릉시로들어가다보면강릉시에서약8km(20리)지점에위치하고있는곳이구산리이다.구산은옛날역원(驛院)이있었던곳이며서행(西行)하는사람과작별하는곳이었다고전하고있다.

구산동의성황당은현재영동고속도로구산휴게소바로맞은편에자리잡고있는데,고속도로에서50미쯤들어가면맞배지붕의와가(瓦家)고옥(古屋)의당집형태로되어있다.그리고성황당근처에는노목(老木)이우거지고돌담으로둘러싸여있다.성황당안에는정면왼쪽으로부터토지지신(土地之神)·성황지신(城隍之神)·영산지신(靈山之神)·여역지신(癘疫之神)의위패가나란히있다.

대관령에서국사성황신을모시고강릉시내로내려오다가이곳구산리성황당에잠시들러머무르고이곳에서유교식형태와무굿형태의성황제를지내고난다음에강릉시내로행진하게된다.예전에는대관령에서국사성황신을모시고구산리로내려오면그때를즈음해서마을사람들이싸리나무와관솔을묶어서만든횃대에불을붙여들고국사성황신을영접했으며구산동성황당에서성황제와굿을하고강릉으로향할때면저녁때가되었는데,구산리마을사람들뿐만이아니라강릉시민들수백명이횃불을들고마중을나왔었다고전한다.그래서구산(邱山)에서부터는노화행렬(爐火行列)이시작되었다.

사진 82. 구산리 성황당에서 제관이 제를 지내는 모습

사진 83. 성황당에서 유교식제가 끝나고 무녀가 춤을 추면서 굿을 하는 모습

## 4. 학산리 성황제

학산리는 강릉시 구정면에 속해 있는데, 강릉시에서 거리상 남쪽으로 5km 정도의 거리를 두고 있다. 학산리는 대관령국사성황신으로 좌정한 역사 속의 인물 범일국사가 탄생했다고 전하는 곳이다.

학산리에는 마을로 들어서는 양쪽으로 나무숲이 우거져 있는데, 그 중에서 오른쪽에 높이가 1m 정도에 지름이 10m 정도의 돌담이 빙 둘러쳐져 있는 성황당이 자리잡고 있다.

이곳에 대관령국사성황신과 그 일행이 도착하면 제물을 차려놓고 무굿형태의 성황제를 지낸다. 이곳에서 강릉단오제 행사의 일환으로 성황제를 지내는 것은 1999년이 처음이며, 대관령국사성황신을 모시고 와서 성황제를 지내는 이유는 국사성황신이라고 전하는 범일국사가 태어난 곳이기 때문이다. 성황제를 지내고 나면 대관령국사성황신을 모신 일행은 마을에 있는 석천(石泉)을 비롯해서 마을을 한바퀴 돈 뒤에 국사성황신을 대관령국사여성황신과 함께 단오제가 시작되기 전까지 봉안하기 위해 홍제동에 있는 대관령국사여성황사로 이동한다.

사진 84. 학산리 성황당에서 무녀가 굿을하는 모습

사진 85. 성황제를 마치고 마을을 한바퀴 돌아 대관령국사여성황사로 이동하는 모습

5.여성황제의(女城隍祭儀)

여성황사는 예전에 남문동(南門洞;지금의 공동변소자리)에 자리잡고 있었으나 지금은 수도관리사무소(水道管理事務所) 후산록(後山麓)에 자리잡고 있다.

여성황사(女城隍祠)는 대관령국사성황(大關嶺國師城隍)의 부인인 여성황을 제사한 곳이다. 세칸짜리 와가(瓦家)로 되어있으며 신축이전된지 얼마 되지 않으므로 단청도 깨끗하고, 정면 벽에 여성황의 영정이 있는데 머리를 길게 땋아서 좌측어깨로 하여 앞으로 늘어뜨린 미인형이며 그 앞에는 호랑이가 그려 있다. 화상 앞에는 국사여성황신위(國師女城隍神位)라고 쓴 위패가 세워져 있다.

이 여성황은 전설에 의하면 강릉사는 정씨(鄭氏)가문의 딸이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여성황사의 관리도 주로 그 정씨 가문의 후손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대관령에서 국사성황을 모시고 4월 15일에 내려오면 단오제가 있을 때까지 이곳 여성황사에 함께 모셨다가 단오일에 제사를 지내게 된다. 그리고 단오일을 앞두고 큰 굿청으로 모셔갈 때까지 약 보름동안 부부성황이 여성황사(女城隍祠)에 머물게 된다. 그 동안은 부부가 함께 있게 되는 셈이다.

사진 86. 대관령국서여성황사 안에 대관령국사성황신의 위패를 봉안하는 모습

사진 87. 대관령국사여성황사의 신도와 대관령국서성황신의 위패

사진 88. 유교식으로 여성황신제를 지내고 있는 모습

사진 89. 유교식제가 끝나고 무녀가 굿을 하는 모습

금년(1999년)에도 단오 2일전인 6월 21일 5시경에 여성황사에서 강릉시장・명주군수・강릉경찰서장이 제관(祭官)이 되어 조복(朝服)을 하고 무녀의 굿과 관노탈춤을 마친 다음에 시내로 거

화행진(炬火行進)에 들어갔다.

성황을 모셔가는 날에는 여성황제(女城隍祭)를 지내는데 그 의례 절차는 대관령국사성황제와 동일하고 제물의 진설도 대관령국사성황제와 같다. 대관령국사여성황제의 합사축문(合祀祝文)의 내용과 그 뜻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某年干支四月干支朔十五日某干支某官某敢昭告于
大關嶺國師城隍之神
大關嶺國師女城隍之神伏惟尊靈位我重鎭尊靈所宅
左海名區人民有居道路爰通靈焉主斯
百神之宗民依厥德國賴其功一善一怒
爲禍爲福人依於神神感於人際茲孟夏
田事方興日吉辰良牲具酒香物雖菲薄
誠則愈篤安危禍福寞非實賜伏願降格庶鑑微誠尙饗

모년사월간지삭십오일간지
대관령국사성황님과국사여성황님께아룁니다.
엎드려생각하건데존령님은저희들의종요로운자리에계십니다. 존령님이계시는동해이름난곳에저희들이살고있습니다. 존령님께서는여러신들중에어른이되시오며백성은그덕에의지하고국가도존령님의은공에의지하고있습니다. 화가복이되고복이화가되니즐거워하기도하고, 노여워하기도하옵니다. 인간은신에게의지하고신은인간에감명을받습니다.
이제여름을맞았습니다. 모든농사가풍년이들도록하여주시옵소서. 좋은날을기려제수를마련하였습니다. 변변치못하오나정성을다하였사오며돈독함을더하였습니다. 존령님께서는안위와화복을사실대로주시지아니한적이없었사옵니다. 엎드려바라옵건데부족한성의입니다. 흠향하옵소서.

6. 영신제(迎神祭)와 국사성황행차

음력 5월 3일에는 국사성황신과 국사여성황신을 여성황당에서 굿청으로 모셔갈 때에 영신제(迎神祭)를 지낸다. 이 영신제에 쓰이는 축문과 그 뜻은 다음과 같다.

維歲次某年干支五月某干支初三一某干支某官某敢昭告于
大關嶺國師城隍之神
大關嶺國師女城隍之神伏惟尊靈位在國師永世來傳
時維端陽修擧蕉典保我人民攘災禱祥
上下齊誠前導巫覡謹以淸酌庶羞明薦歆格尙饗

모년5월간지삭초삼일(간지)
대관령국사성황님과국사여성황님께아뢰옵니다.
삼가생각하건대존령님은저희들의종요로운자리에계시오며국존이기도하십니다. 대대로전해내려오는단오절입니다. 초전을닦고받드오니저희들을보살펴주시옵소서. 재앙을멀리하고상서로움이깃들도록저희모두가무격을앞세우고정성을다하여삼가제수를마련하여올리오니부디흠향하여주시옵소서.

사진 90. 영신제를 준비하는 제관들

사진 91. 영신제에서 분정(分定)을 읽어주는 모습

사진 92. 헌관이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모습

사진 93. 무녀들이 소지를 올리는 모습

사진 94. 여성황사에서 정씨가지(鄭氏家址)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 95. 정씨가지에서 제를 지내는 모습

사진 96. 무녀가 춤을 추는 모습

사진 97. 무녀가 소지를 올리는 모습

사진 98. 국사성황행차

사진 99. 행렬이 강릉시내를 한바퀴 돌아 난장에 있는 가설굿당으로 이동하는 모습

사진 100. 굿당에 대관령국사성황신과 여성황신의 위패를 함께 모시고 신목을 봉안하는 모습

사진 101. 위패와 신목을 봉안하고 무격들이 굿을 하는 모습

사진 102. 무격들이 춤을 추는 모습

7.조전제(朝奠祭)

조전제는단오날아침뿐만이아니라음력5월4일부터7일까지아침마다지낸다.강릉시장이초헌관이되고경찰서장이나강릉교육장이아헌관이되는데,사정에따라다른기관장(機關長)이대역(代役)을맡는일도있다.이조전제는유교식으로이루어지는데대관령국사성황신과대관령국사여성황신을모셔놓은단오장의굿당에서행해진다.

조전제의의례절차는대관령국사성황제와동일하고제물의진설도대관령국사성황제와같다.조전제에쓰이는축문과그뜻은다음과같다.

維歲次某年干支五月某干支朔初某日干支某官某敢昭告于
大關嶺國師城隍之神
大關嶺國師女城隍之神伏惟尊靈位我重鎭位在國師
永世來傳時維端陽修擧蕉典保我人民
禦災防患轉禍爲福莫非神功人依於神
神感於人市郡民生欲賴所願水火旱災
傳染疾病拒之驅之除去防止雨順風調時和歲豊六畜蕃盛
五穀豊登擇茲吉日
牲醴齊誠物雖菲薄誠則愈篤伏願尊靈庶鑑微誠尙饗

모년5월모일간지
대관령국사성황님과국사여성황님께아뢰옵니다.
삼가생각하면존령님은저희들의종요로운자리에계시오며국존이기도합니다.대대로전해내려오는단오절입니다.초전을닦아받들어저희들을보살펴주십시오.

재앙과 환란을 막으시고 화를 돌려 복이 되게 하여 주신 이 모든 것은 성황님의 은공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인간은 신에게 의지하고 신은 인간에게 감명을 받습니다. 시와 군이 저마다 생업에 종사하면서 신령님께 바라는 것은 물, 불, 가뭄의 재앙을 막아주시고 전염병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적당한 바람과 비를 때를 맞추어 내리게 하여 풍년이 들게 하여 주십시오. 온갖 가축(소, 말, 돼지, 양, 닭, 개)을 번성하게 하시고, 오곡이 풍년들게 하여 주십시오. 이에 좋은 날을 가리어 정성껏 제수를 마련하였습니다. 비록 변변치 못하오나 정성을 다 하였사오니 돈독함을 더하게 하여 주십시오. 엎드려 바라옵건대 하나같이 부족한 성의옵니다. 흠향하여 주시옵소서.

사진 103. 조전제를 지내기 위해서 굿당에 준비된 제단

사진 104. 조전제를 지내기 위해 제관들이 도열해 있는 모습

사진 105. 제관이 홀기를 읽고있는 모습

사진 106. 제관들과 무격들 모두가 신에게 절을 하는 모습

사진 107. 헌관이 홀(笏)을 들고 서있는 모습

사진 108. 제관이 엎드려 축문을 읽고 있는 모습

사진 109. 축문을 태우고 있는 모습

사진 110. 신께 빌었던 축문이 고스란히 타서 재가 되고 있다

사진 111. 조전제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모습

사진 112. 제단을 찾은 사람들의 소원을 위해 무녀들이 소지를 올려주는 모습

8.무속제의(巫俗祭儀)

강릉단오제는 영동(嶺東)제일가는큰향토신제로무제(巫祭)의성격이강하다.무(巫)는하늘을섬기고신(神)을받드는기능이있어신제의(神祭儀)의주재자로서의역할을맡아했다.5월5일의본제(本祭)를앞두고남대천변(南大川邊)의굿당으로모시는데도중여성황의생가(生家)라전하는정씨가(鄭氏家)와옛날에는소성황(素城隍),약국성황에도들러굿을했다고한다.여성황사에합사(合祠)한수일동안굿을했고굿당에모신후로는매일조전제(朝奠祭)가있었으니,관원에의한유교제의가끝난다음에는무격에의한굿이있었고단오날무굿의절정을이루게된다.

1964년당시무녀(巫女)장대연은열두거리라해서다음과같은거리로구성되었었다고말하고있다.

①부정굿②성황굿③성주굿④군웅굿⑤세존굿⑥조상굿⑦설영굿⑧제석굿⑨당고매기⑩심청굿⑪손님굿⑫뒤풀이

그리고그녀는이외에도여덟신악(神樂)을부르기도했었다.이번1999년도강릉단오제에서연행된무속굿은부정굿-청좌굿(골매기성황굿)-화해동참굿(화회굿)-세존굿-조상굿-산신굿-심청굿-천왕굿-축원굿-성주굿-손님굿-군웅장수굿-제면굿-용왕굿-꽃·뱃노래굿-등노래굿-탈굿(지탈)과같은열일곱거리로[1]이루어졌다.

---

1) 무속제의의 각 거리에 대한 내용은 황루시의 「강릉단오굿」(『江陵端午祭 白書』, 강릉문화원, 1999)을 참고·인용하였음.

사진 113. 굿당을 꾸미기 위해 굿당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1

사진 114. 굿당을 꾸미기 위해 굿당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2

사진 115. 굿을 보기 위해 모인 수많은 사람들

①부정굿

굿청에 신을 모셔오기에 앞서 굿당과 주변의 모든 부정을 가시게 하는 굿이다. 손님을 맞기전에 집을 청소하듯 부정굿도 굿청에 관련된 모든 신들을 맞기전에 불결하고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어 버린다는 의미로 행하는 첫거리이다. 즉, 부정굿은 무녀(巫女)가 물과 불로 굿당을 깨끗이 정화하고, 축원으로 굿에 참가하는 사람들의 개개인의 부정을 가시게 하여 신이 내려와 좌정할 수 있는 깨끗하고 성스러운 공간을 만드는 거리이다. 부정굿은 어느 지방이나 어느 굿이나 할 것 없이 굿서장을 장식한다.

사진 116. 부정굿에서 무녀가 무가를 부르는 모습

②청좌굿(골매기성황굿)

마을을지켜주는고을막이신을골매기성황이라고한다.굿을하기에앞서미리마을의어른인골매기성황을모셔놓고앞으로할굿의내용,목적등을아뢰게된다.이때성황당에가서신대에신이내리도록빌고,골매기성황신이신대에강림하면마을의길흉을묻고,대를앞세워마을을일주

한뒤굿당으로돌아와서굿을시작하는것이원칙이지만,단오제때에는이미대관령에서성황님을모셔왔기때문에여타의모든신들을불러굿청에좌정시키는굿이청좌굿이다.

사진 117. 청좌굿 장면

③화회동참굿

하회굿,하해굿,또는하후굿이라고도발음한다.모든신들이서로화해하고한자리에앉아굿을받으라는뜻의굿이다.특히,남녀로이루어져있는성황님부부가화합하기를바라는내용을담고있다.즉,대관령국사성황님과국서여성황님이평소에는대관령과강릉시내에서로떨어져있지만단오제를하는동안은두부부신이화합하여한몸,한마음이되어굿을받으시라는내용을담고있다.

사진 118. 화회동참굿 장면

사진 119. 굿을 보면서 흥겨워하는 할머니의 모습

사진 120. 쇄납으로 반주하고 있는 김석출옹

④세존굿

시준굿이라고도 한다. 풍년을 비는 굿으로 당금애기 설화가 노래된다. 당금애기가 부모 몰래 세존과 정을 맺고 임신하여 가족들의 따돌림을 받다가, 마침내 아이 아버지 세존을 만나는 줄거리이다. 즉, 세존굿은 생산을 관장하는 신인 세존과 당금애기의 결합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무속신화를 구연하는 굿이다. 이때는 다른 악사들을 모두 물리고 대개 무가를 부르는 무녀와 그녀의 남편이 장고잡이 겸 고수로서 단 둘만이 무가를 구연하는 것이다. 무가의 구연이 끝나면 무녀는 중놀이를 하는데, 깊은 산중에서 내려온 스님이 속세에서 잠을 잔후 세수하고 양치하고 짚신을 삼는 내용을 춤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진 121. 세존굿 장면1

사진 122. 세존굿 장면2

⑤조상굿

가정에서조상님을모셔자손의만복을빌고,집안의태평을기원하는굿이다.이때조상신은어떤한가정의조상신을일컫는것이아니라모든가정의조상신을아우르는것이고정상적인죽음

으로 저승세계로 간 조상뿐만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죽음으로 인해 저승세계로 간 조상까지 모든 선대의 조상신을 포함한다.

⑥산신굿

산신의 정기를 빌어 가정이 화목하고 자손들이 장성해서 번창하기를 비는 굿이다. 산신굿에는 특별히 불려지는 무가가 없고, 여러 명산의 산신들을 청하고 대관령의 산신을 모시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기의 강릉단오제의 무속제의에는 이 산신굿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후대에 첨가된 것으로 추측된다.

⑦심청굿

판소리 『심청전』의 내용이 구송되는 굿이다. 마지막에 장님이 점치는 장면이 삽입된다. 무녀는 갓을 쓰고 창호지를 가늘게 썰어 늘어뜨린 신대를 메고 굿을 하는데, 사람들이 이 창호지로 눈을 씻고 복전을 걸면 눈이 맑아진다고 전한다. 심청굿을 할 때도 다른 악사들을 물리고 장고잽이와 단둘이서 연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 심청굿은 강릉이 동해안의 거읍이고 바다에 인접해 있어 인근에 어부들이 많아 바다를 주제로 한 심청굿이 채택된 것으로 이해된다.

사진 123. 심청굿 장면1

사진 124. 심청굿장면2

⑧천왕굿

천왕께 기원하는 굿으로 굿이 끝난 다음 원님놀이란 풍자적인 촌극이 어어진다. 일명 원님굿이라고도 한다. 무가의 내용은 우리나라가 명당임을 밝히고 치국잡이를 한 후에 불교적인 천왕풀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사진 125. 천왕굿 장면

⑨축원굿

행운과초복(招福)을기원하는일종의재수굿이다.이축원굿은개인을위한것이기도하지만가정이나마을의번영과재수를위한것이기도하다.

사진126. 축원굿 장면

⑩성주굿

성주는집안에있는가신중에서어른이고호주와가족의길흉화복을맡은신이다.솔씨를뿌려가꾸어큰재목으로키워베어다가집을짓고,온갖세간을들여놓고다복하게사는과정을노래한다.

사진 127. 성주굿 장면1

사진 128. 성주굿 장면2

⑪손님굿

천연두는무서운병으로마마또는손님이라불린다.그래서마마와홍역을가져오는신으로믿는손님을정중히모시는굿이다.즉,마마에걸리면얼굴에흉터가남아곰보가되기때문에마마에걸리지말기를바라고,걸려도곱게흉터없이해달라고비는굿이다.심청굿처럼무녀는갓을쓰고

신대를메고굿을하며사람들은신대에돈을매달아시주한다.무가는마마손님을잘못모셔서자식을잃고패가하는과정을담고있는손님풀이가불려진다.

사진 129. 손님굿 장면1

사진 130. 손님굿 장면2

⑫군웅장수굿

일명놋동이굿이라부르기도하는데나라와마을을지켜준장군들을위로하고전사한영혼을위로하는굿이다.무녀는커다란놋동이를입에물어올리는묘기를보여주기도한다.군웅신을장군신으로알려져있다.

사진 131. 군웅장수굿 장면1

사진 132. 군웅장수굿 장면2

사진 133. 군웅장수굿 장면3

⑬제면굿

제면굿은 '제민굿', '계면굿' 이라는 비슷한 명칭이 있으며, 옛날에 어떻게 해서 무녀가 생기게 되었는가 하는, 무녀가 나온 내력을 밝힌 무당굿이다. 즉, 무당의 조상으로 알려진 제면할머니의 넋을 청하여 대접하는 굿이다. 강릉지역과 울진지역에서는 제면할머니를 무조(巫祖)로 설정

하고 있다. 무당이 푸닥거리를 하기 위하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하는 걸립을 계면놀이라고 하거나, 무당이 구경꾼에게 주는 떡을 제면떡·계면떡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 계면은 무녀를 상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굿의 내용은 한 마을에 신이 들린 단골네가 있어 마을에 다니면서 걸립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이 그 단골네를 푸대접하여 재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동네굿을 하더라도 그 마을에는 신들린 무당이 나지 않게 해달라는 뜻에서 제면굿을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 굿의 끝에는 제면떡이라 하여 밤톨 모양의 흰떡을 무녀들이 팔기도 하고 굿당의 관객들에게 던져 주기도 한다. 이 떡을 먹으면 복이 오고 재수가 있다고 한다. 이 굿에서 무녀는 오른손에 신칼을, 왼손에 부채를 든다.

사진 134. 제면굿 장면1

사진 135. 제면떡을 나누어 주는 모습

⑭용왕굿

물을지배하는신으로믿어지는수신(水神),즉용신(龍神)을위한굿으로서그것을통해입신양

명과 안녕을 기원하는 것이다. 강릉지역의 지리적 위치가 그렇듯이 용왕굿은 특히 어촌에서 많이 전승되고 있는 굿이다.

사진 136. 용왕굿 장면1

사진 137. 용왕굿 장면2

⑮꽃・뱃노래굿

꽃노래굿은무녀들이굿청에모셨던꽃을각자양손에하나씩들고나와꽃풀이노래를하고둥그렇게춤을추면서하는굿인데,영혼들이꽃밭이나저승으로잘가라는뜻에서하는굿이다.뱃노래굿은굿당에매어놓았던용선을흔들어배젓는흉내를내면서무녀가노래를부르는굿으로서,영

혼들이저세상에갈때에배를타고평안히가라는뜻을담고있다.

사진138. 꽃뱃노래굿 장면1

사진 139. 꽃뱃노래굿 장면2

사진 140. 꽃뱃노래굿에 쓰이는 용선

⑯등노래굿

등노래굿은굿당에매달아두었던등을내려서무녀가처음에초롱등노래가부르고다음에팔각등(탑등)을들고무가를부르는것으로이루어진다.즉,무녀들이등을좌우로흔들고춤을추면서갖가지등의이름을부르는데,원래영혼들이저승에가는길을밝혀주는뜻을내포하고있는데,강릉단오굿에서는대관령성황님이편히가시라는뜻이기도하다.

사진 141. 등노래굿 장면1

사진 142. 등노래굿 장면2

⑰탈굿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액을 풀어 없애고 가정이 태평하도록 하는 굿놀이이다. 이때는 무격들이 종이로 만든 탈을 쓰고 나와서 재미있는 극을 보여준다.

사진 143. 탈굿 장면1

사진 144. 탈굿 장면2

9.송신제(送神祭)

5월5일단오제를마치고다음날인6일또는7일에성황신을다시성황사(城隍祠)에모시기위한송신제(送神祭)가있다.송신제를마지막으로모든제의는종료가된다.

①홀기(笏記):국사성황당제에서와같다.
②진설(陳設):성황제와같음.
③송신제축문(送神祭祝文)

維歲次某年干支五月干支朔七日某干支某官某敢昭告于
大關嶺國師城隍之神
大關嶺國師女城隍之神伏惟尊靈位我重鎭位在國師
永世來傳時維端陽修擧蕉典保我人民
禦災防患轉禍爲福莫非神功人依於神
神感於人市郡民生欲賴所願水火旱災
傳染疾病拒之驅之除去防止雨順風調
時和歲豊六畜繁誠五穀豊登端陽已畢
還安舊堂牲醴非薄誠則愈篤伏願尊靈庶鑑微誠尙饗

모년5월7일
대관령국사성황님과국사여성황님께아룁니다.
삼가생각하건데존령님은저희들의종요로운자리에계시오며국존이기도하십니다.대대로전해내려오는단오절입니다.초전을닦아받들어저희들을보살펴주십시오.재앙과환난을막으시고화를돌려복이되게하여주신이모두성황님의은공이아닌것이없습니다.인간은신에게의지하고신은인간에게감명을받습

니다.시군민이저마다생업에종사하면서바라는것은물,불,가뭄의재앙과전염질병을막고거스리는모든것을제거하여주시고순탄한바람과알맞는비를때맞게내리게하여풍년이들게하여주십시오,온갖가축(소・말・돼지・닭・개・양)을번성하게하시고오곡을풍년으로들게하여주십시오.이제단오제가끝났으니옛사당으로돌아가십시오.이에정성껏제수를마련하였습니다.비록변변치못하오나정성을다하여돈독하게하였습니다.엎드려바라옵건데부족한성의옵니다.흠향하여주십시오.

사진 145. 송신제를 지내기 위해 제관들과 무격들이 도열하고 있는 모습

사진 146. 송신제때 소원을 빌고 있는 할머니 모습

사진 147. 유교식제가 끝나고 무녀들이 춤을 추고 있는 모습

사진 148. 소제를 지내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모습

사진 149. 단오제에 쓰였던 물건들을 불태우기 위해 한군데에 모아놓는다.

사진 150. 활활 타오르는 불빛이 단오제가 거의 끝났음을 보여준다.

사진 151. 관노가면극에 쓰였던 탈도 단오제가 끝났음을 아는지 모르는지